

지역개발연구 제45권 제1호, 2013년 6월, pp.39-66

중국 3농문제와 차산지 농촌관광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고찰

- 항저우시 룽징촌, 수저우시 동싼진과 진팅진을 사례로 -

이금동* · 츠지 카즈나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고유의 그린투어리즘인 농가락에 대해, 문헌 연구 및 유명 차산지의 유관기관과 농가의 사례 분석을 통해, 농가락의 정의와 전개 과정, 중국 정부 중대 과제의 하나인 3농문제에의 공헌 가능성을 살피는데 있다. 둘째, 전통있는 유명 차산지, 항저우시(杭州市) 룽징촌(龍井村), 수저우시(蘇州市) 동싼진(東山鎮)과 진팅진(金庭鎮), 3곳의 농가락 사례에서, 각 지역 농가락의 양상과 지역 특색의 전통농업 방식, 경영주의 매니지먼트와의 관계 등을 고찰한다. 셋째, 농가락이 차산지의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에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를 재고한다.

주제어 : 3농문제, 농가락, 차산지, 경영자, 지속 가능한 내발적 발전

I. 서론 - 연구 배경과 목적

1. 중국의 도농간 소득 격차 증가, 3농문제

중국은 경제 개혁 개방 이후, 공업화로 현저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도시부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농촌부와의 수입 격차는 확대되었다. 2012년 중국 통계국 자료의 도농간 수입격차는, 1985년 1.9배, 1990년 2.2배, 2000년 2.7배, 2010년 3.2배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 해소는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정치적 과제이다.

2004년 후진타오(胡錦濤) 온지아바오(溫家寶) 정권이 출범한 이후, 중앙정부

* 李錦東, 사가대학 대학원 농학연구과 특정연구원, E-mail: leegd212@hotmail.com

** 辻一成, 사가대학 농학부 준교수

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그 해의 중요 과제를 적시하는 ‘1호문건’은 2004년부터 최근의 2013년까지 3농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특히 농민의 수입향상은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두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소득 격차가 줄고 있지는 않다.

2. 3농문제 해결의 중요한 해결책-향촌관광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 및 유관기관은 도농간 교류를 바탕으로 하는 농촌관광(이하, 향촌관광¹⁾)을 3농문제 해결의 유효하고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향촌관광의 국가 레벨의 계획을 발표하며 실행했고, 지원했으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중국정부는 향촌관광 발전을 통해 3농문제를 해결하고, 향촌관광을 발전시킴으로서 국내 내수 시장의 발전은 물론,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 조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10년, 향촌관광 영업수익은 1,200억 위엔(元), 향촌관광에서 직접 수익을 얻는 농민이 1,500만 명, 농가락 운영 농가는 150만 호, 레저농업지구는 18,000 개소, 연간 관광객수는 4억 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다.²⁾

3. 문제 제기-향촌관광은 농가 농업을 중심으로 고찰되고 있는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향촌관광을 추진하면서 양적 성장을 거듭했다. 한편, 이러한 양적 성장은 질적 성장을 동반했는가, 향촌관광 도입 농가의 경영상태는 양호한가, 향촌관광이 거시적 안목에서 충분히 고찰되었는가 등등의 비판적 견해나 문제 제기가 있다.

관련해서, 중국 3농문제 해결과 중국식 사회주의신농촌건설(社會主義新農村建設), 향촌관광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뤄지고 있고, 선행 연구도 적지 않다.³⁾ 향촌관광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부의 향촌관광에 대한 장기적 전략 부

1) 중국의 향촌(鄉村)은 행정구분 향진(鄉鎮)정부가 소관하는 지역으로, 농촌(주민의 다수가 농업인인 지역)을 포함한다. 당초 농촌관광이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도시화된 농촌 및 다양한 형태의 비도시 지역을 포함하지 못함에, 2007년 이후 향촌관광으로 대체되고 있다.

2) <http://www.cnta.gov.cn>에서 인용. 중국관광신문(中國旅游報) 2011년 5월 2일자 기사, 2013년 5월 11일 열람. 한편, 2013년 3월 28일의 중국방송넷(中國廣播網) 기사, ‘전국 레저농업 및 향촌관광 선진회의(全國休閑農業與鄉村旅遊現場會, 난창시(南昌市) 개최)’ 발표 자료는 2012년 레저농업과 향촌관광을 실행하는 곳은 8.5만 개소, 그 경영자는 170만 호(그 중 농가락 150만 호)이다. 관련 종사자는 전국 농촌노동력의 6.9%에 해당하는 2,800만 명이며, 연간 관광객수는 8억 명, 영업수익은 2,400억 위엔을 초과했다.

재 및 감찰 부족, 법률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 등도 있고, 김혜자 (2011)⁴⁾처럼 향촌관광객을 대상으로 향촌관광 행선지 선택 및 방문 행태 등을 분석한 연구는 다수 있다.

그러나, 향촌관광을 농가 농업 농촌의 지속적 발전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3농문제 해결에의 중요 해결책의 하나가 향촌관광이라면, 향촌관광의 경영에 대한 농가의 입장 및 농업의 지속성을 고찰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향촌관광을 농업 농가 농촌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고찰은 매우 적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향촌관광의 주요 형태로, 농가가 가족경영 단위로 관광농업, 농가식사, 농가민박 등을 제공하는 농가락(農家樂)에 초점을 맞춰, 전통있는 유명 차산지 3곳의 농가락 경영 사례에서, 농가락 경영이 농가수입 향상과 생계유지 전략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사례 연구의 향진(鄉鎮)의 입지 및 전통 농업의 특색, 그에 대한 경영주의 의식 및 경영 마인드에 대해, 상호 관련성을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중대 현안 과제의 하나인 3농문제 해결에의 공헌 가능성을 살피고, 농가락이 차산지의 지속적 발전에 유효한 전략이 되기 위한 과제 등을 재고한다.

II. 향촌관광의 발전 및 농가락

1. 향촌관광의 정의 및 중앙 정부의 향촌관광 추진

향촌관광(鄉村旅游, 향촌여유)은, 도시주변 농촌부를 포함하는 광의의 경제발전도상 지역의 고유한 경관과 자연 환경, 생산 활동과 생활 문화 등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 형태이다.⁵⁾

향촌관광은, 1970년대에 태동했으나, 그 내용과 사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정치적 목표에 수반된 접대활동으로 부차적인 것이었고, 1980년대에 시작된 선전시(深圳市)의 여지(荔枝, lychee)축제 등을 비롯한 농촌축제 시행이 그 시발점으로 인식된다. 향촌관광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 정부

3) 선행연구 분류에 관해서는 鄒穎(2011), pp.35-39, 참조.

4) 金慧子(2011), “확장된 계획행동모형을 이용한 중국인 농촌관광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1년 8월.

5) 高田晋史(2010a), p.146-147참조.

가 향촌관광에 관심을 갖고 국가차원의 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9년 허난성(河南省) 쟁저우시(鄭州市)에서 열린 중국농민관광협회 제3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협회를 중국향촌관광협회(中國鄉村旅游協會)로 개칭 재정한 시점이라 여겨진다.⁶⁾

한편, 중국관광국(國家旅游局)은 1995년 이후 매년 테마를 정해 관광 정책을 펼치며, 1998년 중국도시농촌관광(華夏城鄉游), 1999년 중국생태환경관광의 해(中國生態環境游年), 2004년 중국서민생활관광(中國百姓生活游) 등, 그 테마가 농촌과 관련된 것이 많다.⁷⁾

2002년, 중국관광국은 국가의 향촌관광 시범지구 검사 및 선정 기준을 발표했고, 2004년부터 시범지구 선정을 시작함으로써, 중국 향촌관광 제도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2006년, 중국관광국은 ‘향촌관광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고, 2007년에는 농업부와 향촌관광 정책 및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촉진에 공동으로 대응해 갈 것을 합의해, ‘전국에 향촌관광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⁸⁾ 즉, 향촌관광이 2007년부터 농촌정책으로도 추진되며, 관광 산업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전국 향촌관광 발전요강(全國鄉村旅游發展綱要)’에서는 2015년까지 ‘천·만·억 향촌관광 프로젝트(千萬億鄉村觀光工程)’를 실시한다고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천개의 특색 관광 향진(鄉鎮), 만개의 특색 관광 마을(觀光村), 연인원 7억7천만 명의 관광객, 향촌관광 수입 1,145억 위안을 창출하는 것이다.⁹⁾

한편, 중앙정부는 2004년부터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고, 특히, 2005년 10월 이후에는 ‘사회주의신농촌건설(社會主義新農村建設)’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촌의 종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¹⁰⁾

6) 金慧子(2011), p.2, <http://www.baike.baidu.com/view/993187.htm> 참조. 2013년 5월 20일 열람. 선전시 제1차 여지축제 개최시기는 이견이 있으나, 바이두는 1988년 6월로 적시했다.

7) <http://www.gov.cn> 등에서 인용. 2013년 5월 11일 열람.

8) 高田晋史(2010b), p.285-286 참조.

9) 중국관광국 ‘全國鄉村旅游發展綱要’ 공모의견, 2009년 7월. <http://www.gov.cn> 에서 인용. 2013년 5월 11일 열람.

10) 2005년 10월, 중국공산당 16회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http://baike.baidu.com/view/95251.htm> 에서 인용. 2013년 5월 18일 열람.

2. 향촌관광 발전의 3단계 구분

향촌관광이 도입된 후, 정부의 주요 시책과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향촌관광은 급속히 확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두 기준과 그 발전국면에 따라 3단계로 시기구분한다.

1) 향촌관광 도입기 [-1994년]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호적관리제도로 농촌인구가 늘어 농촌에 과다한 잉여 노동력이 발생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제도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노동자 노동의욕 저하로 노동생산성은 매우 저조했다. 정부는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하여, 1978년 농업생산책임제를 도입했고, 생산량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생산성이 급속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82년 중국공산당 농촌경제에 대한 ‘제1호 문건’에, 1980년 즈음에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던 가정연산승포책임제도(家庭聯產承包責任制度)를 전국 농촌에 도입할 것을 명시했다. 이 제도는 인민공사 소유의 토지를 농가에 배분해 책임 생산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농민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 잉여 생산이 가능했고, 농촌의 잉여 노동력은 비농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가 확립되었다. 당시 도시부에서는鄧小平(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도시주민 생활 수준은 점차 향상되고 있었다.¹¹⁾

이 시기의 향촌관광은 정부 주도형 모델과 농촌 주민의 자립형 모델이 양립하고 있었다. 정부 주도형 향촌관광은 정부가 전적으로 계획, 경영, 관리, 판매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해당 지역 농외소득 증대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도시 근교에서는 농가락(農家樂) 형식의 향촌관광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이 시기의 향촌관광은 관광객에게 식음료, 숙박, 농가 주변 환경 관광을 제공하는 수준이었고, 농촌 지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 했다.¹²⁾

2) 향촌관광의 발전기 [1995년-2003년]

1995년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말 관광 붐이 일었고, 1997년 향촌관광 관광객수는 1억 명을 초과했다. 이 시기, 정부의 도농일체화 전략으로, 향촌관광은 도시와 농촌간의 연대를 도모하며, 도시주민에게 농촌고

11) 金慧子(2011), p.22, <http://baike.baidu.com/view/33729.htm> 참고. 2013년 5월 14일 열람.

12) 金慧子(2011), p.23 참조.

유의 청정한 환경 및 농촌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1998년 이후, 향촌관광에 역점을 둔 정책을 다수 실시했다. 향촌관광 경영방식은 농가+농가, 기업+농가, 정부+농가형 등이 있었고, 이 시기에는 향촌관광의 다양한 산업과 제도 및 정책 등을 융합하는 추세였다.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관광농업 뿐만 아니라, 관광부동산업, 사회문화교육 등등 타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향촌관광 상품화가 진행되었다.¹³⁾

3) 향촌관광 성숙기 [2004년-현재]

2004년 이후, 새로운 중국 향촌관광 시범지역이 육성 장려됨에 따라, 향촌관광은 급속히 발전했다. 중국관광국은 2006년 ‘중국향촌관광(中國鄉村游)’, 2007년 ‘중국도시농촌융화관광(中國城鄉和諧游)’, 2008년 ‘중국국제향촌관광마라톤(中國國際鄉村旅游長跑賽)’ 등을 테마로 실시했다. 이 시기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적 기초 생활 편의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향촌관광 경영방식도 기존방식에 대형 관광기업이 향촌관광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매스 관광화 하는 면도 있다. 또한, IT기술이 향촌관광에 널리 도입되었고, 온라인 홍보, 판매, 예약 등 인터넷 이용 경영환경이 정착되고 있다.¹⁴⁾

4) 향촌관광의 발전

1990년 이후, 향촌관광 종업자수의 추이는, 1990년 3,286만 명, 2000년 7,194만 명, 2007년 9,427만 명으로, 17년간에 약 3배나 증가했다. 또, 농가의 관광소득은 17년 동안에 명목상 약 11배나 증가했다. 농가소득에 대한 관광소득 비율도 1990년 7%에서 2000년 10.2%, 2007년 1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표 1> 참조). 즉, 이는 향촌관광이 차지하는 농가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향촌관광 종업자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의 약 3,286만 명에서 2007년에는 9,427만 명으로 약 3배로 증가했고, 이는 향촌관광이 농촌인구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2년간은 단지 2.7%가 증가해서 고용 창출면에서는 답보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표 1> 참조).

13) 金慧子(2011), p.23-24 참조.

14) 金慧子(2011), p.24-25 등 참조.

〈표 1〉 향촌관광 발전 단계별 농가소득 및 향촌관광 종업자수

단계별/년도		농가소득 (위엔 元) A	농가의 관광소득 (위엔) B	향촌관광 종업자수 (만명) C	국내 관광객수 (백만명) D	국내관광 총지출 (億위엔) E	B/A ×100 (%) F	C.5년간 증감률 (%) G	D.5년간 증감률 (%) H	E.5년간 증감률 (%) I	E/D ×100 (위엔) J
도입기	1990	686.3	48.2	3286.3	na	na	7.0	na	na	na	na
발전기	1995	1577.7	149.7	5550.0	629.0	1373.7	9.5	68.9	na	na	218.4
	2000	2253.4	230.5	7193.8	744.0	3175.5	10.2	29.6	18.3	131.2	426.8
성숙기	2005	3254.9	377.0	9179.7	1212.0	5285.9	11.6	27.6	62.9	66.5	436.1
	2007	4140.4	518.1	9427.1	1610.0	7770.6	12.5	2.7	32.8	47.0	482.6

주: A 농가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수입포함)

B 농가의 관광소득=숙박+식음료+기타 서비스 소득

C 향촌관광 종업자수=숙박+식음료+기타 서비스업 종업자

D 국내관광객수=농촌주민+도시민 관광객수

원자료: 중국통계청 및 중국관광부의 통계자료

자료: 김혜자(2011), P.26에서 인용. 단. 일부 표기 변경 있고, F-J는 필자 가필 작성

F 농가 소득중 관광소득의 점유율

※G, H, I 최하단은 2년간의 증감률

J 1인당 국내관광 지출

국내 관광객수는 2000년 이후 5년간에 약 63%나 성장하고 있고 성숙기의 2년간에도 약 33%나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 관광객수의 1인당 지출은 2000년 이후 7년 동안에 명목상 13% 증가에 그치고 있다(<표 1> 참조).

3. 향촌관광의 유형 분류-농가락

중국 향촌관광의 유형은, 그 기준을 도시와의 거리, 관광자원 내용, 경영주체,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 정도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본 연구는 향촌관광 개념상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되는 향촌의 도시와의 거리, 향촌 경관자원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도시 의존형 향촌관광과 경관자원형 향촌관광의 두 타입으로 분류한다.

1) 도시의존형 향촌관광

도시의존형 향촌관광은 도시 근접 지역에서 주요 고객인 근접 도시의 주민에게 향촌의 풍경, 음식과 주거문화 체험 등을 제공하며, 도시 주민의 향촌에의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재방문 가능성이 높다.

2) 경관자원형 향촌관광

경관자원형 향촌관광은, 도시부와 원거리에 위치하나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다. 고객은 특정 도시주민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관광객 및 해외 관광객이며, 재방문 가능성은 도시의존형 향촌관광에 비해 현저히 낮다. 경관자원형 향촌관광 개발은, 도로 등의 인프라 설비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관광지의 각종 고유 자원, 소수민족의 민족문화 등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국의 향촌관광 자원은 국내 전체 관광자원의 70%를 차지하며, 56개의 다양한 민족, 각 지역의 독특한 향토문화와 민속, 지역성을 간직한 농촌 풍경, 풍광 등 다양하다. 중앙정부의 정책 및 지원, 성(省) 이하 지방정부의 향촌관광사업의 전략적 정책적 지원으로, 향촌관광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각 지역의 농업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통계로는 농가락이 향촌관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서론 2절). 농가락은 도시의존형 향촌관광에서 출발하나, 그 개념 확대로 경관자원형 향촌관광마저도 대부분을 포함하게 되었다.

高田¹⁵⁾는 농가락을 향촌관광의 하부 개념으로 두며, 향후 공적자금 투입의 증가 등을 예측했다. 2007년 이후, 정부의 향촌관광 관련 정책방향을 ① 농촌 진흥정책으로서 인프라 정비 강화와, 농촌 보조정책으로서의 추진, ② 향촌관광 시장성 개발과 농산물 고부가가치화, ③ 중국의 “제11차 5개년기획” 중요 프로젝트에 향촌관광을 포함시키며, 향촌관광의 본래의 이념인 지역 고유 자원의 유효활용을 강조하고, 농촌 경제발전에 중점이 놓인 데서, 향촌관광 정책은 농촌 정책으로서의 측면이 강해지고 있다고 했다.

4. 농가락의 정의, 전국적 확대, 급증 배경

농가락은 1987년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근교 피현(郫縣) 여우아이진(友愛鎮) 농커촌(農科村)의 쑐지위엔(徐紀元) 씨가 농커촌을 방문한 관광회사 사장을 자택에 초대 접대한 것이 시초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 명칭은 1992년 3월, 당시 쓰촨성의 부서기(副書記) 핑위엔웨이(馮元慰)이 쑐徐 씨집을 시찰했을 때, 농가관광의 맛과 멋을 농가락으로 표현해 휘호(揮毫)한 것이다.¹⁶⁾ 그 후, 농가락은 쓰촨성의 농촌 빈곤 대책으로 추진되었고, 이러한 성(省)의 노력은 중앙정부도 주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농가락은 농촌경관이나 자연환경, 농업 생산활동, 지역문화 등을 자원관광화 해, 관광객이 농가를 방문해, 그 고장의 향토요리를 취식하고, 농가에서 숙박하는 것이 주요 테마로, 관광객이 농촌의 생활이나 농업을 체험하고 배우면서, 아름다운 경관과 풍요로운 자연환경을 즐기는 향촌관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념이 확대되어 향촌관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15) 高田(2010b), pp.283–288.

16) <http://www.chengdu.gov.cn>, <http://www.pixian.gov.cn>, <http://www.jj831.com> 등 참조. 쉬 씨의 인터뷰 중에는 1994년에 처음 휘호했다는 것도 있다. 2013년 5월 10일 열람.

개념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다.¹⁷⁾

본 논문에서는, 농가, 농업의 측면을 중시해, 농가락은 농가를 단위로, 농가가 농업 체험, 음식, 차, 숙박 등을 제공하며, 지역의 민속문화, 경관, 체험 등을 주제로 하는 향촌관광 형태로 정의하며, 체재 시간에 따라 당일형과 체재형(1박 이상 숙박)으로 나눈다.

향촌관광(농가락)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 배경은 크게 3가지가 들어진다. 첫째,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주민의 소득향상이며, 이는 근교 농촌에의 관광ニ즈의 증가로 이어졌다. 둘째, 국민의 연간 휴일수가 증가로, 1995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1999년 5월 노동절, 10월 국경절, 설날(春節) 3시기의 대형연휴가 설정 정착되어 국내관광업의 비약과 동시에 향촌관광도 급증했다. 셋째, 중앙정부가 향촌관광을 3농문제 해결의 유효한 수단으로 주목하며 전술했던 주요 정책들을 실시한 것이다.¹⁸⁾

5. 중앙 정부의 농가락에 관련된 농가에의 보조정책

정부는 향촌관광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3농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관광국에 의하면, 정부는 농가락 경영을 도입하는 경영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① 농가락 경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가에, 1만 위엔(약 175만 원)의 보조금을 지불한다. ② 농가락 경영자에게는 3년간 주요 세금을 면제해준다. ③ 농가락 경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농가는 무이자 대출금 5만 위엔(약 875만 원)을 이용가능하다.

III. 유명 차산지의 농가락 사례

1. 사례조사 대상지, 도시의존형 향촌관광의 적지 3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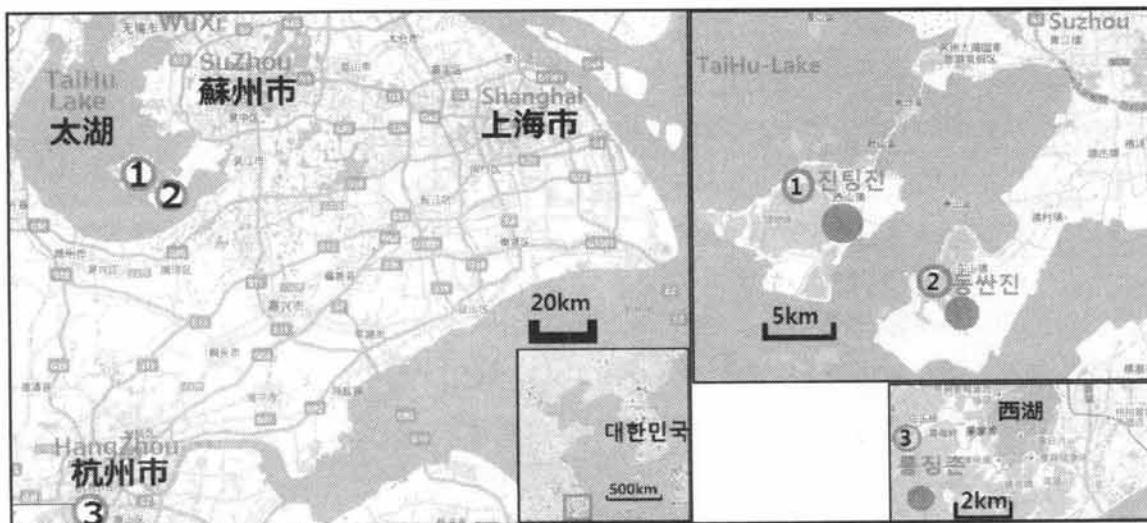
중국은 세계 최대의 차 산지이고, 세계적인 명차도 많다. 중국 10대 명차¹⁹⁾

17) 농가락은 아직 사회적으로 공인된 명확한 정의는 없고, 착안점 및 형태도 다양하며, 그 범주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경영주체도 지역 단위나 그룹으로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농가락에는, 지역특색을 접두어로, 호수의 고장 농가락(湖鄉農家樂), 대나무고장 농가락(竹鄉農家樂), 어촌농가락(漁鄉農家樂), 화원의 고장 농가락(花鄉農家樂) 등도 있고, 도시에 인공적 향촌관광 경관을 조성한 경우도 있다.

18) 高田(2010a), p.284, 등 참고.

중 녹차는 시후롱징(西湖龍井), (동팅)비루오춘((洞庭)碧螺春), 황싼마오펑(黃山毛峰)이다. 시후롱징과 비루오춘 산지는 중국에서 풍광이 좋은 도시 항저우시, 수저우시의 외곽 지역에 입지한다.²⁰⁾

따라서, 항저우와 수저우의 유명 차산지는 도시의존형 향촌관광의 적지이다. 이 지역 농가의 청취조사를 통해, 농가락의 도입이 각 지역의 농민의 수입향상 및 생계, 농업에 어떠한 의미를 갖으며,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가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농가락이 3농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한다.



〈그림 1〉 중국 항저우시 롱징촌, 수저우시 동싼진과 진팅진(<http://www.google.co.jp>)

중국정부가, 향촌관광은 1차산업과 3차산업이 융합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차산업은 차농가가 전통적으로 생업을 생산해 황차로 가공 판매했고, 향촌관광에서도 다원을 경관자원 혹은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 차산지의 농가락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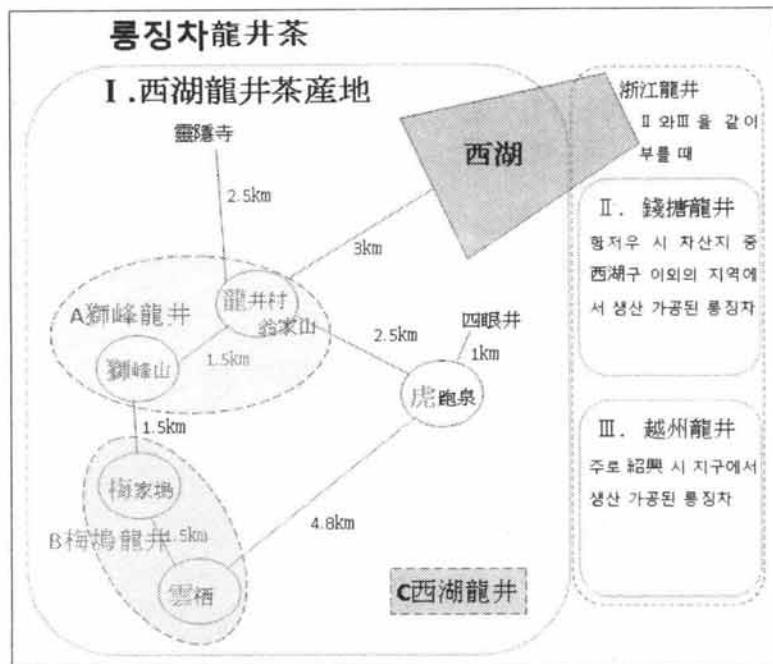
2.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 시후구(西湖區) 롱징촌(龍井村)

19) 이 3차예, 바이하오인찐(白毫銀針), 우룡차(烏龍茶), 다흥파오(大紅袍), 티에관인(鐵觀音), 치먼홍차(祁門紅茶), 진싼인찐(君山銀針), 푸얼차(普洱茶)이다(이설 있음). 시후롱징은 세계적 명차로 중국 녹차의 대명사이고, 동팅비루오춘도 중국 10대 명차에 꼭 포함된다.

20) 수저우(蘇州)와 항저우(杭州)는 예로부터,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지상에는 수저우와 항저우가 있다. 上有天堂, 下有蘇杭”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연이 아름답다.

1) 시후롱징 차산지

롱징차²¹⁾ 생산의 역사는 약 1200년이다. 롱징차는 2009년 지리적표시제 등록²²⁾으로 저장성 항저우시의 시후(西湖), 치엔탕(錢塘), 샤오씽시(紹興市)의 위에저우(越州) 3지구로 한정되며, 산지별로 I 시후롱징, II 치엔탕롱징, III 위에저우롱징으로 나뉜다. 최고 품질의 시후롱징은 항저우시 시후구 롱징춘 주위의 168㎢ 내에서 생산되고, 이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며 안개가 자주 끼며, 평균기온은 16℃이며 강수량은 1500mm 이상이다.



〈그림 2〉 롱징차의 구분

시후롱징차는 이른 차시기에 어린 짹만을 따서 만드는 덮음차로, 품질 기준은 차시기가 이른 것, 찻잎이 여린 것, 덮음 기술 숙련도이다. 산지내의 소지역별 강우량 기온 등의 생장조건이 미묘하게 달라 소지역별 찻잎 품질이 다르고, 각 지의 가공기술도 조금씩 달라, 지역별로 품격이 다른 맛과 향기가 난다. 그래서,

21) <http://www.baidu.com>, <http://www.gd.xinhuanet.com/newscenter/2013-03/31/c> 등 참조

롱징차나무는 품종이 다양하나, 롱징 43호가 대표종이다. 차시기별로 ①밍치엔(明前)은 청명(4월 5일) 이전에 일아일엽의 차잎을 수확 가공한 것, ②위치엔(雨前)은 청명부터 곡우(4월 20일) 이전에 수확한 것, ③도우춘차(頭春茶)은 곡우 후 5일간 수확한 것으로 나뉜다.

22) <http://www.cnwest.com>에서 인용. 2013년 5월 16일 열람. 저장성 공상국은 1997년부터 롱징차 상표신청 준비를 시작해 2006년 8월 상표등록을 신청했고, 2009년 1월 등록되어, 국가법률로 정식 보호를 받게 되었다.

다섯 지역으로 나눠, 쓰평산(獅峰山) 일대를 사자(獅), 룽징과 옹지아산(翁家山) 일대를 용(龍), 윈씨(雲栖) 일대를 운(雲), 메이지아우(梅家塢) 일대를 매(梅), 후파오취엔(虎跑泉)과 쓰이앤징(四眼井) 일대를 호(虎)라 했다. 크게 세 산지 등급으로 구분할 때는 A쓰평룽징(獅峰龍井), B메이우룽징(梅塢龍井), 그 외 지역의 C시후룽징으로 분류한다(<그림 2> 참조). 또 다른 등급 명칭도 있으나, 산지내 지역명을 4등급화한 1獅, 2龍, 3 雲, 4 虎의 4등급 분류가 상용된다.

2) 룽징촌 개요

시후룽징차 산지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히는 곳이 쓰평룽징으로, 쓰평산 일대와 룽징촌 일대이다. 룽징촌에는 320호의 농가가 등록되어 있고, 한 농가당 가족은 3-4인에서 많게는 5인이다. 1980년 가정연산승포책임제도가 도입되며, 룽징촌 인민공사의 1,000무²³⁾의 경지가, 1인당 1무씩 토지권이 배분(호당 3,4 무)되었고, 현재 룽징촌 1호당 평균 면적은 약 5무이다. 현재, 룽징촌 내에는 차점포 경영 농가가 100호 정도가 있으며, 재적농가 100호 정도는 다원을 임대하고 타관에 돈벌려 나갔다.

<표 2>는 5 무의 다원에서 차를 생산해 외부의 도매상에게 판매할 때의 평균적 소득이다.

〈표 2〉 룽징촌 룽징차 생산 농가 소득

(단위: 위안元)		
조 수 일	1 무 황차 생산 평균	32.5kg
	1kg 평균단가(도매)	1,000
	1호당 평균 다원 면적	5무
162,500		
경 영 비	차수확 노동자 임금 (한달간 약20일)	3,000
	고용자 수	8명
	닦을 가공 노동자 임금	6,000
	고용자 수	1명
	고용자 1개월 생활비	800
	총고용자 수(수확+닦을)	9명
	비료, 방제비, 다원 관리비 등	20,000
57,200		
소득		
105,300		
자료: 2012년 10월 룽징촌 청취조사 참고: 1위안=175원 때에는 연간 소득 1,843만원		

시후룽징차의 생엽 생산은 시배관리와 제초를 하는 수준이다. 정부가 사용 가

23) 무(畝)는 중국의 면적 단위로, 1 무는 약 6.67a(아르)다.

능한 농약도 지정하고 있지만, 방제는 물리적인 방제가 우선된다. 산지에는 정부로부터 비료 및 기계 보급에의 보조금이 지급되나, 그 외의 직접적인 자금 원조는 없다.

판로는 정부가 기본적으로 1무당 일정분을 수매하고 있고²⁴⁾, 수매가격은 일반 판매시보다 고가격이다. 비수매분은 각 농가가 자유롭게 판매하고 있다.

한편, 룽징촌은 시후룽징차의 시배지의 주거 경관을 정비하는 ‘룽징촌경관정비프로젝트’를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이전의 위법 건축과 불법 구조물 철거 및 주택

의 리폼, 정부의 도시 수준 상하
수도 정비와 전선의 지하 매설
이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농가
145호가 관련되었고, 주택의 리
폼 비용은 농가 부담이었다. 불
법 건축 및 불법 구조물 등의
철거된 연면적은 12,000m²이었
다. 단, 이 정비에서 100m² 정
도의 합법 건축물도 철거되었다.



〈사진 1〉 룽징촌 모습 일부(2012년)

3) 사례 농가

① LZ 씨, 50대(여) – 다원관광+차 품평+농가식사 제공

LZ씨의 가족 구성은, 부부와 아들 부부로 4명이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원 면적은 7무로, 4무는 농가의 다원이며, 3무는 1,200 위엔에 차입했다.²⁵⁾ 1무당 생산량은 첫 수확은 황차 9kg, 2,3번째 수확량은 10kg~15kg정도이다.

3월말부터 5월의 차시기에는 차수확을 위해 9명(1인은 요리사)을 고용하며, 안휘이성(安徽省) 출신이 대부분이며, 임금은 1일 150 위엔²⁶⁾이다. 1일의 가공에는 5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가족이 뒤음 작업을 하고 있다.

판매는 본인 차점포에서 하며, 차시기 1일 고객수는 평균 7인(최다 15인)으로, 1kg 단가는 최고급품 明前은 10,000~6,000 위엔, 저가 상품은 3,000 위엔이다. 정부 수매가는 1kg에 15,000 위엔으로 점포 최고가의 1.5배이다.

24) 적게는 1무당 500g, 많게는 생산량의 80%까지 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5) 룽징촌의 1무의 다원 임대가는 400위엔에서 500위엔이다.

26) 룽징촌 차수확 노동자 임금은 약 150위엔으로, 농촌 타노동 임금의 다섯배에 해당한다.



〈사진 2〉 등급별 차품평 체험

현 농가락 경영 형태는 2005년 도입했고, 농가식사는 남편이 요리를 담당하고, 고객수 및 고객단가는 일정치 않다. 차품평 시음가격은 1인 15위안이다(<사진 2> 참조). 차시기외에는 비교적 저급품 롱징차 4종류를 판매하고 있고, 상급은 1kg에 3,000 위안, 중급 2,600~2,400 위안, 하급은 1,600 위안 정도이고, 모든 상품은 연말

에 품절된다. 차잎 따기 체험은, 차수확 시기가 아닌 가을 등에 시연하거나 체험하도록 할 뿐이다.

② LQ씨, 72세(여) - 다원경관 제공 + 차 품평 및 차판매

LQ씨 가족은 부부이고, 자녀 둘 중 딸은 결혼 후 분가했고 아들은 도회로 나갔다. LQ씨 다원면적은 4무이고, 1962년 차재배 및 가공을 시작했고, 현재 차업 후계자는 없다.

차수확기에는 1일 7인의 수확 노동자를 고용하고, 1일 임금은 150 위안이다. 노동자는 안휘이성과 양씨성(江西省) 출신이고, 차가공은 본인의 체력 때문에 안휘이성 출신의 1인을 1개월 7,000 위안에 고용하나, 고용인의 덮음기술은 일정치 않다.

LQ씨의 관련 연수입은 약 13만 위안이며, 6-7만 위안이 경영비로 지출된다. 현재의 농가락은 2005년 도입했고, 차점포에서 차품평 및 시음을 할 수 있고, 가격은 한잔에 15 위안이다. 차시기 이외에는 비교적 저급품의 롱징차 4종류를 판매한다.

4) 롱징촌 향촌관광의 특징

롱징촌의 향촌관광은 당일형 농가락으로 다원 및 거리경관을 보여주고, 차점포에서 차 품평을 체험하며, 시후롱징 관련 지식을 듣는 것이 주된 형태이다. 롱징촌의 농가락 도입 주목적은, 차생산, 가공, 판매의 일관형 차농가가 본인 점포에서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차판매 단가를 향상시켜, 차업을 강화 유지하는 것이다. 롱징촌의 차의 판로는 확보된 상태였으나, 외부 도매상과의 거래는 가격 교섭력이 약해 명성에 걸맞는 단가를 받을 수 없었다. 산지에 향촌관광객을 유치

해, 구매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소득을 배가할 수 있었고, 차농가는 2005년 ‘룽징 촌경관정비 프로젝트’에도 자기자본으로 적극 참여했다.

일부 몇 농가가 경관안내 및 차품평에, 농가식사를 제공하는 농가락을 도입하고 있으나, 농가민박을 도입하기에는 경관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엄격해 객실 확보가 힘들다.²⁷⁾ 그리고 차농가는 다원 보호를 위해 찻잎 따기나 차만들기 체험관광의 도입에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3. 장수성(江蘇省) 수저우시(蘇州市) 동싼진(東山鎮) 비루오춘촌(碧螺春村)

1) 동팅비루오춘(洞庭碧螺春) – 아그로포레스트리

동팅비루오춘 차는 1998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었고, 2002년부터 ‘원산지 상품보호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원산지는 수저우시 타이후 동팅산(洞庭山) 주변 133km² 내 동싼진(東山鎮), 진팅진(구 시싼진西山鎮)이다(<그림 1> 참조).²⁸⁾



〈사진 3〉 전통적인 아그로포레스트리



〈사진 4〉 신 아그로포레스트리 조성지

차시기는 매년 3월 20일 경부터 4월 20일(곡우) 무렵까지이고, 3월 하순부터 4월 5일(청명) 사이에 수확한 차가 최고급품이다. 수확은 1.5~2.0cm크기의 일 아일엽을 원칙으로 하며, 한 잎의 크기는 1cm에 불과해, 비루오춘차 500g에는

27) 룽징촌에는 경관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 있고, 3인 4인 가족에 80㎡의 면적이 정해져 있다. 조사지구내의 농가민박은 1가구(객실 20실) 뿐이나, 비(非)농가의 소규모 호텔이 있다.

28) 비루오춘(碧螺春) 이름은 찻잎이 푸르고(碧)과 나선형(螺)인데서 유래했다는 설, 1699년 청나라 강희(康熙) 황제가 사람을 죽일 정도로 향이 뛰어나 혁살인향(嚇煞人香)이라 불렸던 벽라봉(碧螺峰)의 차를 지명과 계절을 따 비루오춘이라 부르도록 명했다는 설이 있다.

6만 5천개의 싹이 들어 있을 정도로 찻잎이 가늘고 작다.²⁹⁾

비루오춘은 아그로포레스트리³⁰⁾ 농법으로 재배되고 있다(<사진 3> 참조). 3,4월의 차, 5월의 비파 및 매실, 6,7월의 소귀나무(양메이楊梅, candleberry)와 복숭아, 9,10월의 석류와 밤과 은행, 10월과 11월과 12월의 밀감 등이 사면에 밀식되어 있다. 비교적 수고가 낮은 차나무는 과일나무 반그늘에서 자라, 차맛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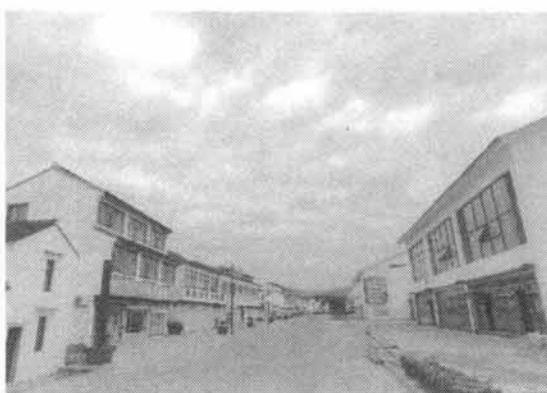
2) 동싼진 비루오춘촌

① 2007년 우중구 새마을 환경 정비사업 중점 마을(蘇州市吳中区村庄整治重点村)

동싼진은 타이후에 파고 든 반도로, 면적은 96.6km², 상주 인구는 5.3만 명이다. 아그로포레스트리가 3만 무 이상으로, 동팅비루오춘차와 바이샤비파(白沙枇杷) 재배 역사가 천년을 넘는 곳이다. 그 중, 비루오춘촌³¹⁾은 면적 약 8.6km², 총 인구는 4,765명, 노동력은 3,790명이다. 농가는 1,796호로, 아그로포레스트리 전체 면적은 3,500무이고, 임지면적은 7,860무, 농산품 협동조합은 6개가 있다. 출자한 농가는 1,083호로 자본금 총액은 612.4만 위안이다.



<사진 5> 2007년 조성의 레저광장



<사진 6> 새마을 환경 정비 사업 지구

29) 고급차일수록 차잎이 가늘고 작으며, 흰 융모로 덮여 있다. 생산량이 아주 적어, 예전에는 전부 궁중에 현상되었다 한다. 비루오춘은 7등급으로 매겨지고, 저급으로 갈수록 융모는 적어지고 잎은 커지나, 7급차라도 다른 종류의 녹차 잎보다는 더 어리다.

30) 이 지역의 전통적인 농법, 다양한 과일나무 및 차나무를 혼식(混植)해, 토지의 집약적 이용, 노동력 분산 효과 등을 얻는다. 1년생 작물의 용어인 간작 혼작과도, 축산 등과도 혼합되며 지속가능한 환경농업으로 주목되는 Agroforestry(삼림농업, 混植農業)와도 약간 개념적 차이가 있지만, 본고는 아그로포레스트리로 통일한다. 혼식방법 및 수종은 엄격히 정해 지는 않고, 수고(樹高) 등을 고려한 농가 경험과 방침에 의해 식재된다.

31) 2003년, 동싼진 비루오춘촌은 이전의 동싼촌, 쟁광촌, 구 비루오춘촌(약 700여호)을 합병해서 신 비루오춘촌이 되었다.

2007년, 비루오춘촌은 새마을 환경 정리 사업을 통해,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있다. 건물 외벽 개선 120호, 소형 오수처리 시설이 20곳, 식재 녹화 사업이 2,000㎡, 도로 포장 2,000㎡에 150만 위엔이 투입되었다. 또, 100만 위엔을 투입해 신 레저광장 2,600㎡을 설치했고, 그 밖에도 문화광장의 설치, 녹화 미화사업 등을 실시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본 농가는 120호다. 레저광장은 4월에 개최되는 차축제 장소로도 쓰인다(<사진 5, 6> 참조).

② 수저우동팅싼비루오춘차업 전문 협동조합 식재기지

2007년, ‘수저우동팅싼비루오춘차업 전문 협동조합 식재 생산기지³²⁾’가 설립되었다. 17개의 차전문 협동조합에 의해 조성되었고, 진내의 모든 산과 구릉지역에 분포하며, 농가는 3,676호이고, 경지 면적은 5,176무이다. 전문 협동조합의 조직을 통해, 전통 아그로포레스트리 농업에 신 수종을 식재하거나, 사면에 계단식으로 조성해 수확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사진 4> 참조). 또, 이 지역의 양질 묘목을 삽목에 의해 재배하고, 비루오춘차의 전통 생산 가공법을 유지 발전시키며, 우수한 재배기술 및 병충해의 선진 방제 기술을 확대함으로써, 비루오춘차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이 기지는 2008년 장수성 농림청에 의해 장수성의 시범 농민 전문 협동조합 조직으로 인정받았다.

3) 사례 농가

① DY씨, 44세(남) – 차점포(차판매, 차품평) + 아그로포레스트리(일부 수확체험) + 농가식사

DY씨 가족의 주요 노동력은 부모와 4인 형제 가족 6인, 아그로포레스트리는 6무이다.

차시기에는 20여일 찻잎을 따는 노동자를 4인정도 고용하고 있으며, 임금은 하루에 생엽 1,500g 수확을 기본으로 기본급 80위엔에 그 이상에는 성과급을 지불한다. 노동자는 안휘이성 출신의 타관 노동자이다. 덮음 과정은 DY씨가 주로 하고 있다.

차생산은 비루오춘은 3월 하순부터 4월 5일(1,2급), 4월 6일에서 4월 20일까지(3급), 차오징(炸青)³³⁾은 4월 21일 이후부터 5월 중순까지 생산하며, 차나무는 5월말에 전정한다.

32) 蘇州洞庭山碧螺春茶葉專業合作聯(合)社種植(植栽)基地

33) 비루오춘 보다 늦은 시기에 수확하고 급이 낮은 차이다. 5월 중순까지 수확하고 있다.

농가락을 1990년대 후반에 도입해, 차의 판매와 시음하는 공간, 농가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차의 수확에 관한 체험은 제공하지 않는다. 차의 주된 판매처는 고정고객이다.

농산물 판매의 제일 수입원인 바이샤비파에 관해서는, 지역의 비파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동싼진 내부의 비파 수확에 숙달된 노동자만을 고용하며, 도매 상에 출하한다. 그 외의 비파는 출하기에 직접 찾아오는 고객(1일 20-30인)에게 판매하나 비파따기 체험은 제공하지 않는다.³⁴⁾

4) 동싼진 비루오춘촌의 농가락의 특징

농가락을 도입한 농가는 전통적인 농업 양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농산물 판매 방식의 증가에 만족하고 있다. 사례 농가의 농가락 도입 목적은 차시기나 4 월의 차축제 기간의 판매량 증대이다. 주요 농산물 판매 소득 작목이며 산지 브랜드가 확립된 비파와 차는, 그 품질 및 명성 유지가 우선되며, 체험 관광은 비파나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도매시장 출하시보다 채산성이 낮다. 즉, 동싼진의 사례 농가는 체험농업이 전통농업의 소득에 뒤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전통 농업을 우선하며, 농업의 지속성과 농가소득 향상에 관한 판단으로, 서비스업 확대노선으로 나아가지는 못 했다.

정부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관을 정비하는 등 농가락 전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 관광객은 늘었으나, 농가는 그 환경 변화에 아직 수동적이며 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상의 전환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차산지로서의 지속적인 생산 방식 및 생산 기반에 관한 고려는 부족하다. 향후 인건비가 상승하면, 타관의 노동자 확보가 곤란해지고, 채산성 악화도 예상된다. 현재, 관련 연구소는 그 대책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계화에의 전환은 아그로포레스트리를 극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곤란하다.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수확의 기계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4. 장수성 수저우시 비루춘 산지B - 진팅진(金庭鎮)

1) 관광지로서의 타이후 호수의 관광 자원

진팅진³⁵⁾은 중국 담수호상의 최대 면적 83.42km^2 의 섬(시싼도西山島)이고,

34) 한편, 일부 채산성이 낮고 과수의 훼손 가능성이 낮은 소귀나무 수확 체험은 제공하고 있으며, 500g에 30위엔에 판매하고 있다.

35) 2008년 5월, 행정구역명이 시싼진(西山鎮)에서 진팅진으로 바뀌었다. 연평균 기온 15.9°C , 연평균 강수량 1,130ml, 섬

재적인구 4.2만 명, 경지 1.4만 무, 아그로포레스트리가 3.1만 무이다. 동싼진과 함께 동팅비루오춘의 주산지, 수저우 타이후 국가관광레저지구로 이어지고, 중국 국가차원의 현대농업시범지구이기도 하다.

섬내에는 1985년 이전에 3개의 인민공사³⁶⁾가 있었고, 1986년 해체되면서, 각 농가는 농지를 1 무씩 할당 받았다. 그 후, 각 농가는 적극적인 개간 등을 통해 1990년 경에는 평균 5무의 농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대의 토지 이용률을 확보하는 아그로포레스트리를 더욱 강화했고, 식재 수종도 다양해졌다(<사진 7> 참조).

그러나, 섬의 불편한 접근성은 농산물 유통 및 판로,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었고, 취업기회도 적어 노동력은 도시부에 유출되고 있었다.

1994년, 전장 4.3km, 폭 12m의 타이후대교가 완성되어 접근성 문제가 해소되면서, 경제 개발은 활기를 띤다. 수저우관광국 자료 관광객수는 1994년 약 10만명에서 2000년 약 30만명으로 6년간에 3배나 증가했고, 2006년에는 약 87만명으로 증가했다.

2) 진팅진 농가락 협회의 출범 - 2005년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진팅진의 농가락은 급속한 발전을 이뤘고, 2005년에는 진팅진의 비교적 규모가 큰 농가락의 경영자가 200여명이 모여서, 진팅진의 농가락과 농산물 직판에 관한 정보를 발신하기 위해 진팅진농가락협회를 설립했다. 주요 업무는 섬의 관광자원을 재조명하는 것이었고, 섬내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관광지를 묶어 관광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 밖에, 구성 멤버 간의 관광객의 상호 소개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팅농가락협회가 제시하는 관광 모델에는 반드시 농가식사, 과일따기체험이 포함되고, 1인 이용



<사진 7> 진팅진 아그로포레스트리(산정상 및 산사면)

의 80%가 山地이며, 그 약 30%에 경제림이 조성되어 있다. 섬에는 타이후의 세보물(흰새우 Chinese white prawn, 벚꽃뱅어, 백어 white fish) 등의 식재료, 연중 피는 다양한 꽃, 연중 생산되는 18 종류의 과일, 과일따기 체험, 차의 품평 및 시음, 옛모습의 마을, 역사 유적 타이후 및 다양한 경관, 종유동(고품질 석회석 산지) 등등의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다. 1996년 리펑(李鵬) 총리 시찰시에, 에코투어리즘 등 1,2,3차 산업이 융합되는 개발의 추진을 지시했다고 한다.

36) 세 인민공사에는 생산 농가 약 30호에서 40호 정도로 구성된 생산 단위(單位)가 각각 85개, 76개, 75개씩 있었다.

요금은 80 위엔에서 200 위엔까지 설정되나 주 상품은 100 위엔 전후이다.

한편, 영세 소규모의 농가락을 경영하는 농가도 2005년 이후 급증했고, 2010년에는 8,233호에 이르게 되었다.

3) 사례 농가

① JX씨, 69세(남) – 아그로포레스트리(차, 과수 다종)+과일 따기 체험 및 직접 판매

가족은 부부이며³⁷⁾, 아그로포레스트리 면적은 4무이다. 차나무 1/3은 실생수이고, 2/3는 1991년에 쓰촨성, 저장성, 푸자좡성의 차 묘목을 구입해서 식재했다.³⁸⁾

차수확 노동자는 고급차 수확기인 3월 20일부터 4월 5일까지 연간 15일 장수성 북부의 50, 60대 여성 3인을 고용하며, 3인 모두 숙련된 노동자로 일당은 100위엔이다. 4월 6일 이후에는 노동 고용없이 부부가 수확한다. 뒤음가공은 부부가 하며, 신탄을 이용한다. 차는 연간 비루오춘 5kg, 차오칭 10kg 정도를 제조하며, 판매소득은 약 10,000 위엔이다. 판매는 진내(鎮內) 차도매장 거리에 직접 가지고 가서, 매일 가격을 흥정해 판매한다.

JX씨가 과일따기 체험을 도입한 것은 2007년이며, 체험을 제공하는 주요 과일은 비파, 소귀나무, 감귤이다. 비파는 5월 중순에서 6월초까지 이뤄지며, 고객 단가는 80위엔 정도이다. 소귀나무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주말(약 8일간)까



〈사진 8〉 JX씨 부부의 과일따기 시연

지 이뤄지며, 하루에 7, 8그룹(한 그룹 5인)이 이용한다. 감귤은 9월말에서 11월말까지 이루어지며, 2012년 10월 국경절 주간에는 하루에 4,5그룹(한 그룹 4인)이 방문했고, 고객 1인 평균 단가는 15 위엔이었다.³⁹⁾ 주 고객은 상하이시, 수저우시 시민이며, 거의 모든 고객은 승용차로 온다.

37) 마을(村) 근처에 장남(47세, 농지면적 6무) 가족과 차남(41세, 농지면적 6무) 가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두 아들은 겸업 농가로, 같은 전통 농법으로 차 및 과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과일따기 체험도 하고 있다.

38) 2003년 원산지 표시법에 관련해서, 외부성(省)의 차나무는 식재하지 않도록 규정되었다.

39) 직경 30cm 높이 30cm 정도의 한 광주리 가격은 45위엔에 판매한다.

② JL씨, 35세(女) - 아그로포레스트리(차, 과수 다종) + 과일따기 체험 및 직접 판매

JL씨의 가족은, 남편⁴⁰⁾, 시부모, 초등생 딸 1명이다. 아그로포레스트리는 5무이고, 차 5,000주, 비파 100주, 소귀나무 200주, 밤나무 10그루 등이 식재되어 있다. 본인과 시부모는 영농에 종사한다.

차시기는 1,2급 비루오춘은 3월 하순부터 청명까지, 3급 비루오춘은 4월 6일부터 곡우까지이다. 그 이후부터 4월말까지는 차오칭으로 제조 판매한다. 차수확은 노동자 고용없이 부부와 시부모의 4명이 하며, 뒤음 가공은 부부가 한다. 수확한 생엽은 약 70%를 집에서 가공하고, 나머지 30%는 진내 차도매상에 차(車)로 가지고 가서 판매한다.

고객은 주로 지인 소개 및 입소문에 의해 확보하고 있고, 가공은 고객의 주문을 받은 후에 수확 가공하고, 여분은 차도매상에 판매한다.

2008년, 과일따기 체험을 도입했고, 주요 품목은 비파, 소귀나무, 밀감이다. 비파는 5월초에서 6월초(주말 8일)까지 이뤄지며, 4,5인의 서너 그룹이 방문해, 1인당 5~7.5kg를 구입한다. 체험자 1kg 판매단가는 36~40 위엔이다. 그 체험판매 후의 여분은 도매상에 판매하며 1kg 단가는 20~24 위엔이다. 소귀나무는 6월(주말 8일)이 시즌이고, 체험자수는 비파와 비슷하고, 판매가는 1kg에 40위엔이며, 도매상 판매가는 1kg 20~24 위엔이다. 밀감은 10월초부터 11월말까지 이뤄지며, 국경절 주간에 4,5인의 3,4그룹이 방문해, 고객 1인당 약 7.5kg를 구입하며, 1인 단가는 약 45 위엔이다.

그리고 JL씨 부부는 아주버님 부부와 합자한 30만 위엔 (1/2씩 출자)으로,⁴¹⁾ 타이후 주변에 2013년 5월 객실 10실의 농가민숙 및 농가식당의 영업을 개시하며, 개점 시기에 남편은 수저우시의 직장을 사퇴하고 농가락 경영에 전념할 계획이다. 농가락 경영 확대는, 현재 농가락이 유행하고 있고, 지역의 관



〈사진 9〉 JL씨 마당에서 과일 판매

40) 남편은 수저우시에 소재하는 플라스틱 금형 제작 회사(친구 경영)에 근무하고 있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차시기에는 회사는 쉬고, 차수확에 종사한다.

41) 정부의 자금 지원은 없고, 영업허가와 위생허가를 획득하는데 행정적 도움을 받았다.

광지로서의 입지 조건을 살려, 지산지소를 실천해, 근린 농가와 어가의 생산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올리는데 있다.

③ JZ씨, 39세(男) – 아그로포레스트리(차+과수다종)+농가민숙+차점포+농가식사

JZ씨는 부모와 부부와 고등학생 아들 한명으로 5인 가족이다. 처는 겸업으로 근처에 출근하고 있으며, 처의 급여 소득은 가계 소득의 1/3정도를 차지한다. 관리하고 있는 아그로포레스트리는 10무(그 중 5무는 전용 다원)이다.

차시기는 3월 15일 경에 시작해 4월 말까지 수확하고, 5월초에 전정작업으로 다원을 관리한다. 3월 15일에서 4월 5일경까지 수확한 것은 비루오춘으로 판매



〈사진 10〉 JZ씨 농가 (3층, 객실 10실)

한다. 4월 5일 이후부터 4월 20일경 까지는 차오칭으로 제조된다. 비루오춘과 차오칭은 약 5일별로 3단계로 나눠 차등 판매된다. 그리고 4월 20일 이후 10일간에는 발효차를 제조하고 있다. 차 수확기에는 안휘이성 50, 60대 여성노동자를 5,6인 고용하며, 일당은 80 위안이다.

비루오춘과 차오칭의 연제조량은 약 60kg정도로 4~5만 위안의 판매

액이다. 판매처는 주요 고정고객 3명이 전 생산량의 1/2정도를 구입해 간다. 그 밖에는 지인을 통한 판매나, 도매상이 점포에 구입하러 오는 경우가 있다. 차는 경영주가 농가락 사용분을 제외한 전량이 7월말에 판매 완료된다.⁴²⁾

농가락 경영은 2007년에 도입했다. 농가락의 성수기는 5월과 6월이며, 타이후 관광자원, 과일 따기 체험, 비루오춘차 시음이 주요 활용 자원이고, 농가부지 내 연못에서 낚시체험도 제공한다. 2007년 농가민박에 필요한 영업허가와 위생허가를 받고, 3실로 시작해, 2008년,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없이, 자기자본 10만 위안을 투자해 재건축했다.⁴³⁾

근처 취락에는 농가식사나 농가민박을 제공하는 농가는 10여호가 있고, 숙박

42) 다원 규모는 현상을 유지할 방침이며, 극조생종 차나무로의 품종 갱신을 검토 중이다. JZ씨의 농산물 판매 소득에 점하는 차의 비율은 약 67%를 점한다.

43) 규모는 3층, 10실(트윈실 형태, 1실 요금은 100위안에서 120위안 정도)로 개축했으며, 인공 낚시터와 마장실을 정비했으나, 무허가 마장실은 당국에 의해 허물리고 말았다.

까지 제공하는 경영주는 3인이며, 이들 경영주는 아직 구체적인 모임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만실일 경우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최대 경영주는 객실 수가 20실이다. 주 고객은 상하이시 시민이 1위, 수저우시의 시민이 2위를 차지한다. 광고는 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객의 입소문에 의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재방문율이 매년 30% 정도나 된다.

4) 진팅진의 농가락

세 농가는 모두 2007년 이후에 농가락을 도입했고, 비교적 영세소규모로, 진팅진 농가락 협회 회원이 아니다. 각 농가 농가락의 실적은, 규모별, 농가 소득에 점하는 농가락 수입 비율 및 향후 경영 방침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일수록 여성과 고령자가 과일따기 체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차생산은 향후 기본적으로는 고급 수제차의 비루오춘차를 유지하며, 농가락을 통해 판매 단가의 강화를 도모한다.

〈표 3〉 진팅진 조사 농가의 특징 및 농가락 내용

농가	경영주	가족 구성	농업규모	농가락 도입년	농가락 내용	비고
①JX	남,69	부부	4무(*AgF 4무)	2007	과일따기	근처에 두아들 부부 거주
②JL	여,35	시부모,부부, 딸1(초등생8세)	5무(AgF 5무)	2008	과일따기+차 수확체험, ***	남편은 수저우시공장 근무 (겸업, 2013년 5월 사직)
③JZ	남,39	부부,아들1 (고교생17세)	10무(AgF 5무, 다원5무**)	2007	과일따기+농가식당+ 농가민박+낚시	처는 근처 귀금속가게 점장으로 근무

자료 : 2012년 10월 청취조사

주 : *AgF는 아그로포레스트리, **다원은 차나무만 식재, ***2013년 5월 농가민박 및 농가식당 개점

〈표 4〉 진팅진 조사 농가의 연간 소득 및 그 내역

(단위:위엔, %)

농가	농가 소득	농산물 판매 소득					농가락					그 외 소득				
		녹차	※	과일	※	소계	비율	과일 체험	※	식당 민박	※	소계	비율	금액	비율	내용
①JX	64,250	10,000	15.6	5,000	7.8	15,000	23.3	39,250	61.1	0	0.0	39,250	61.1	10,000	15.6	송금(장남, 차남)
②JL	98,000	10,000	10.2	10,000	10.2	20,000	20.4	30,000	30.6	0	0.0	30,000	30.6	48,000	49.0	남편 급여(통근)
③JZ	174,500	20,000	11.5	10,000	5.7	30,000	17.2	29,000	16.6	65,500	37.5	94,500	54.2	50,000	28.7	처의 급여(통근)

자료 : 2012년 10월 청취조사

주 1 : ※ 및 비율은 농가 소득에 점하는 비율, 과일체험은 과일 따기 체험 및 딴 과일 판매

2 : 환율 1위엔=175원으로 환산하면, ①약 1,124만원 ②약 1,715만원 ③약 3,064만원이다.

농가락을 도입하면서, 주 소득원이 바뀌었고, 앞의 2산지와는 달리 차수확 체험도 경영의 일환으로 도입(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락의 서비스를 기존농업 이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소득 향상 효과에서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표 3, 4> 참조).

또한, JL씨 부부는 농가락 경영확대를 위해 자금을 조달해, 도시부의 직장을 사퇴하고, 농가락 경영에 전념하며 지역농업을 기반으로 서비스 제공에 특화하려고 하는 것, JZ씨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통 시설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농가 모두 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농가락 관련 소득 비율도 30%에서 60%정도를 점하는 주소득원이 되었다는 주목할 만하다(<표 3, 4> 참조).

4. 사례 연구 3산지에서 보는 농가락과 3농문제 해결, 그리고 산지의 지속성

유명 차 3산지의 사례에서 농가락의 도입 동기와 농업의 지속성에는 그 지역 전통농법의 특성 및 농가의 매니지먼트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표 5> 3산지의 농가락의 결과, 3농문제에 대한 검토 및 농업(차업)의 지속성

산지	종 가	경연 주 연령	경지 면적 단위 면적*	3농문제			증생산기반		증업소득 과 농가락 비중*5		경영주 의 실 현황		농가락의 효과
				증 업 면 적	증 농 면 적	증 민 수 입1	후계 자*3	수확:가 공·보통 자	증 영 면 적	증 업 면 적	증 영 면 적	증 업 면 적	
				증 업 면 적 단 위 면 적*	증 농 면 적 단 위 면 적*	증 민 수 입 면 적 단 위 면 적*	1	2	증 영 면 적 단 위 면 적*	증 업 면 적 단 위 면 적*	증 영 면 적 단 위 면 적*	증 업 면 적 단 위 면 적*	
봉정촌	LZ	50세	7호	-	◎	◎	◎	○	△	Ag>Rt	○	○	직거래 강화로 고수일 일정, 차업 기반 강화
봉정촌	LO	72세	4호	-	◎	◎	◎	X	△	Ag>Rt	△	○	직거래 강화로 고수일 일정, 차업 기반 강화
봉진진	DY	44세	6호	-	○	○	○	-	△	Ag>Rt	○	○	직거래 강화 및 수입 합성, 행정 기반 강화
진팅진	JL	69세	4호	-	○	○	○	○	△	Ag<Rt	△	○	농가소득 향상과 보람 있는 농업
진팅진	ZJ	35세	5호	-	○	○	○	-	○	Ag<Rt	○	○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을 기반으로 6차산업도전
진팅진	ZJ	39세	10호	-	○	○	○	+	△	Ag<Rt	○	○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 기반의 경쟁력의 다각화

자료 2012년 10월 창원군사를 기준으로 작성

주1. 증업 대화는 농업의 기계화 및 구조 확대로 정의하면, 수확 및 가공의 기계화, 전 농가 자체식 수확 및 가공

주2. 농촌 구조개혁은 농업의 산업화/생산 유통구조의 현대화 등이다. 3 산지 모두 현대화된 안정된 유통 시스템은 없다.
하지만 농가락을 통한 6호 모두 직거래를 강화했다. ○는 대부분 직거래 판매 ○일부는 균형의 도약 상에 판매

주3. 후계자 -> 아직 영농주가 없음

주4. 수확 및 가공 노동자는 타성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현재는 다른 노임보다 비싸서, 해년 고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주5. 비중의 40% 농업, 50%는 농가락 관련

주6. 경영 다각화의 종류는 다각화 의지 강함, ○는 조금 있음, Ⓜ현상 유치

주7. 향후 농업 지속여부 ○는 농가락은 일본 농업의 강화에 근본 목적이 있고, ○농업은 농가 경영의 일부로 강한 의지는 없다.

봉정촌은 세계적인 브랜드력이 있는 시후봉정의 단일 경작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유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농가락을 도입했고, 차업 강화가 주목적이다(<표 5> 참조).

수저우시 동싼진과 진팅진의 두 산지는 지역적으로 근접해 있고, 지역의 전통적 농업 형태도 대동소이하나, 농가락의 도입 목적 및 그 양상은 다르다. 농가소득에 점하는 농가락 관련 소득 비율이 큰 진팅진의 농가락 농가는, 농업은 하나의 경영 자원일 뿐이며 농업을 바탕으로 농가락 서비스 제공에 주된 미래전략을 두고 있다. 진팅진에서는 농촌의 취업형태 변화와, 도시에서 농촌으로 회귀하는

노동자도 나타났다. 한편, 농가소득에 점하는 농산물 판매소득 비율이 큰 동싼 진은 농업의 지속에 중점을 두고, 농가락을 농가경영의 보조 도구로 생각하며, 경영주들의 농가락에 대한 의지도 그다지 크지 않다. 즉, 두 산지의 큰 차이는 경영주의 매니지먼트가 주요 결정 요소이다(<표 5> 참조).

세 산지 사례 농가의 경우 농가락은 3농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농업의 근대화에 검토가 필요하다. 농가락이 3농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를 어떤식으로 규정하며, 가장 주체가 되는 농가가 농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표 5> 참조).

농가락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며, 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진화에는 먼저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농가가 정책적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허들이 낮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조사 농가는 한 농가도 정부의 보조금 혜택 등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 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는 못 했지만, 농가락이란 간판을 내건 농업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경영자도 보였다.

그리고 차산지의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고찰이 필요하다. 긴 역사속에서 유명한 차산지로 차업이 주업인 롱징촌에서도 시후롱징차 생산 기반을 장기적 안목에서 유지하고 차생산 기반과 농가락을 어떻게 융합해 갈 것인가 별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 동팅비루오춘 차산지에서도 유구한 역사 속에서 형성된 아그로포레스트리나 차산업 생산 기반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는 충분치 못 하다(<표 5> 참조). 단지 연구소 만의 기계화 추진은 논의는 생산자 수준에서는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처럼 보인다.

이러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외부의 자금이나 정치적인 슬로건이나 통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노력만이 계속된다면, 농가락은 개념의 확대와 더불어, 유사업종과의 차이점 및 특성이 감소해, 지역의 농업과 농촌의 고리나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IV. 결 론

이상에서, 본 논문은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된 향촌관광, 농가락을 정의하며, 그 발전 상황을 정리했고, 정부 주도에 의한 향촌관광

의 특징과 유형을 분석했다. 그리고 전통있는 유명 차산지 3개소의 유관 기관과 농가락 경영 사례에서 농가의 농가락의 도입 목적과 결과를 검토하며, 농가락의 한 모습을 살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과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정부에 의한 향촌관광 진흥은 1998년 중국관광국의 “중국 도시농촌 관광”테마 제정이 효시가 되었고, 2004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매년 최상의 정책 과제를 명시한 ‘1호 문건’에 3농문제 해결에의 중요 수단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특히, 2006년 중국관광국의 “농촌관광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서” 발표 이후, 다음 해인 2007년에는 중국관광국과 농업부가 공동으로 농촌관광을 진흥하는 체재가 정비되어, 정부의 의한 향촌관광 진흥과 농가락 지원에 대한 다중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둘째, 사례연구 3산지의 농가락에는 정부의 인프라 정비가 기폭제가 되었다. 진팅진의 농가락의 성장에는 1994년 준공된 타이후대교가, 동싼진 및 룽징촌도 2000년대의 인프라 정비사업이 있었다. 해당 지구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자기 자본을 투자해 주거 시설 및 거리의 경관 개선에 참가했고, 농가락 경영을 도입하는 농가도 늘었다. 향촌관광 진흥에 접근성을 개선하는 인프라 정비, 관련 경관 조성 및 개선사업이 기초가 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농가락이 농가수입 향상과 생계 유지 전략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했다. 룽징촌에서는 차의 직접 판매를 통해, 차업을 강화하고 있다. 진팅진에서 농가락을 경영하는 농가는 2005년 이후 급증했고, 농가락의 형태는, 관광농업, 농가식당, 농가민박 등의 형태다. 이 중 짊고 의욕적인 농가 중에는 농가락을 통해 고액의 수입을 확보해, 관광농업의 경영을 부업에서 주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성장에는 시설 정비를 위한 자금조달과 영업허가 등을 획득하기 위한 지식이나 기능이 필요하다. 향후 농가락의 질적 향상측면에서는, 소규모 농가락 경영자에의 적절한 자금공여와 경영 교육 및 연수기회 등 소프트웨어적인 행정 시책을 충실히 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넷째, 각 지역의 입지적인 특색과 전통적 농업의 특색, 이와 농가락에 대한 경영주의 경영 마인드에 따라, 농가락의 경영 형태 및 주 목적의 상이성을 명백히 했다. 농가락이 차산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농가락이 유효한 전략이 되고, 3농문제의 중효한 해결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고유 농업의 지속성과 신농촌의 건설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3산지도 장래의 산업기반에 대한 고찰은 충분하지 않고, 재래의 명성에 의지하고 소득향상이 중심이 된 농가

략이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 생활과 농업에 관한 재고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중국 연구의 제반 제한 연유에 의해, 다양한 사례 및 장기간의 추이를 들여다보지는 못 했고, 이 점은 향후 보완할 과제로 남겨 둔다.

참 고 문 헌

- 高田晋史(2010), “中国固有의 農村투어리즘 農家樂”, 『農業과 經濟』 2010年8月 臨時增刊號, pp.146-147.
- 高田晋史(2010), “中国農村政策에서 보는 農家樂의 政策的意義에 關한 考察”, 『農林業問題 研究』 2010年 9月 第179号, pp.283-288.
- 金慧子(2011), “확장된 계획행동모형을 이용한 중국인 농촌관광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호텔관광학과 박사학위 청구 논문, 2011년 8월.
- 鄒穎(2011), “관광동기에 따른 농촌관광지 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중국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1년 8월.

<Abstrac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of the Famous Tea Producing District of Nongjiale, Unique Chinese Rural Tourism

- Case study on Longjing Village in Hangzhou city & Jinting village and Dongshan village in Suzhou city -

Geumdong Lee

Specific Researcher (Ph.D), Graduate Schoool of Agriculture, SAGA University

Kazunari Tsuji

Associate Professor, Faculty of Agriculture, SA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Nongjiale (which is a unique Chinese rural tourism) becoming the effective solution for the Problem of 3 Nong (Nongjia:Farmer, Nongye:Agriculture, Nongcun:Farm villag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irstly, it investigates the definition of Nongjiale and its process of development by means of book review and field works which are conducted on famous tea producing districts of China with a related tea institute and tea farmers. Secondly, through fieldwork conducted at three famous and historical tea producing districts of the tea farmer's rural tourism, aspect of Nongjiale is examined in each district, along with the farmers' management and the traditional agriculture of each district. Thirdly, Nongjiale was examined to determine if it could have a valuable endogenou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other tea producing districts.

Key Words: The problem of 3 Nong, Nongjiale (a unique Chinese rural tourism), Tea producing districts, Farmers' management, Endogenous sustainable development.

논문접수일 : 2013.05.31

심사완료일 : 2013.06.15

게재확정일 : 2013.06.26